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정미선(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최근 한류의 확산세에 힘입어 한국을 향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K-Book 열풍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2024년 2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0~2022년 국내 출판 수출 현황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 저작권 수출 도서의 번역 언어(총 16개) 중에서 중국어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 디지털 도서관 홈페이지 상세 검색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설정하고 적용하면 한·중 수교가 맺어진 199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가 부여된 한국문학 작품의 중국어 번역서는 총 1,042권으로 검색된다.

상술한 통계와 검색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도서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내에서 한국문학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비주류 문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중국 출판시장의 트렌드, 중국 독자들의 취향과 코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¹⁾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및

1) 文麗華(2018)는 한국문학 작품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중국에서

출판은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사업에 힘입어 가속도가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번역문학 작품이 중국 출판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중국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한국문학을 전문으로 번역하는 중국어 번역가가 많지 않은 현실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문학에 박학다식하면서 독자적으로 번역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번역자가 부족하다.

오늘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역의 중요성, 번역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문학번역 교육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 문학 번역가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일, 양질의 번역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일, 문화 간·문학 의사소통을 위한 번역 교육 교수법을 개발하는 일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수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한국의 전문 통번역 교육 기관에 초점을 맞춰 실제 문학 관련 중국어 번역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 및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판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출판 비용의 미해결 문제, 수준 미달의 번역 결과물과 양국 간 정치·경제·외교 정책의 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성, 즉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지 아닌지와 중국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장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중국 출판사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문학번역서 대부분이 한국 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이거나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중국 내에서 이러한 번역서의 매출량은 매우 저조하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지만 생활 양식 및 사고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상호 간의 문학 및 작가 인지도 또한 매우 낮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 문학이 중국에서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한국 순수문학의 행보는 쉽지 않으며, 중국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 내 한국문학의 출판 및 수용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문학의 위상을 고찰한다.
- 2) 전문적인 중국어 문학 번역가 양성을 위해 한국 내 통번역 교육기관에서 한중 문학번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 3)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중국 내 한국문학의 출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번역 도서 검색 데이터베이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에서 각각 공개한 『2020~2022년 국내 출판 수출 현황 조사연구』 보고서와 『2021년 전국 신문출판업 기본 상황』 문서를 기본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한국 통번역 교육기관의 한중 문학번역 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7개 대학의 통역번역대학원과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를 주요 연구 분석 범위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각 연구 문제를 2장,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별도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및 기술을 통해 타당한 논거로 활용하였다.

2. 중국 내 한국문학의 출판 및 수용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중국 내 한국문학의 출판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문학이 중국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0~2022년 국내 출판 수출 현황 조사연구』의 권역별 수출 현황을 보면, 아시아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고 유럽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저작권 수출 도서의 번역 언어(총 16개) 중에서는 중국어가 57.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영어(9.7%), 일본어(9.5%), 태국어(4.4%), 러시아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문학번역원 디지털 도서관 홈페이지 상세 검색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설정하고 적용하면 한·중 수교가 맺어진 199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한국문학 작품의 중국어 번역서는 총 1,042권으로 검색된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봐도 한국 도서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출판 한류 현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지만,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번역 도서들이 한국 문학작품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소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 도서 상황과 문학작품의 수용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23년 2월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신문출판업 기본 상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중국의 수입 도서는 3,636만 7,100권으로 251,385,100달러에 달한다. 『2021년 전국 신문출판업 기본 상황』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 도서 관련 정보’와 ‘도서 저작권 수입국 및 지역별 상황’을 <표 1>,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수입 도서 관련 정보

수입 도서 종류	수량	금액(달러)
아동 도서	967만 900권	33,435,400
문학·예술	843만 9,400권	57,369,900
문화·교육	654만 3,800권	4,448,700
자연·과학기술	266만 9,900권	33,307,100
철학·사회과학	130만 4,100권	21,276,300
기타 ²⁾	773만 90권	61,515,700

<표 1>에 나타난 수입 도서의 특징적인 현상은 아동 도서, 문학·예술, 문화·교육, 자연·과학기술, 철학·사회과학 순으로 많이 수입된다는 점이다.

2) 중국도서관분류법(中國圖書館分類法)은 종합적인 국가 표준분류법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 사상,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종합 도서라는 다섯 가지 대구분과 22개의 기본 분류로 구성되었다. 종합 도서에는 총서, 백과사전, 유서(類書), 사전, 논문집, 전집, 선집, 잡저(雜著), 연감, 연간지, 정기 간행물, 연속 출판물, 도서 목록, 문헌 요약, 색인이 포함된다.

아동 도서의 수입이 많다는 것은 한국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중국인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다음으로 문학·예술, 문화·교육 분야의 수입 도서 비중이 높은 것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더불어 중국인의 문화적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2

도서 저작권 수입국 및 지역별 상황

수입국 및 지역	건수
미국	3,211
영국	2,624
일본	1,990
독일	883
프랑스	742
한국	441
대만	355
싱가포르	267
홍콩	129
캐나다	125
러시아	97
마카오	2
기타	1,139

<표 2>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441건)은 미국(3,211건), 영국(2,624건), 일본(1,990건), 독일(883건), 프랑스(742건)에 이어 6번째로 중국이 도서 저작권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004년~2011년까지는 한국이 미국, 영국, 일본, 대만에 이어 5위(장애리, 2013)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과 10년 만에 독일과 프랑스에 밀려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1위~3위와의 현저한 격차는 논외로 하더라도 4위인 독일과 비교해 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내 한국 문학작품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 및 수용 경향을 다룬 연구로는 고인덕(2007), 장애리(2013),

왕염려(2014), 최면정(2014), 강경이(2016), 김선남(2016), 김정일(2022) 등이 있다.

고인덕(2007)은 중국에서 호평받은 한국문학 작품을 판매 부수, 작가, 언론 평가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그 분석 대상을 순수문학에 속하는 세 작품으로만 국한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³⁾

장애리(2013)는 1930년대~2010년대 초반까지의 중국어 번역 출판 흐름을 통시적으로 고찰했고, 왕염려(2014)는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일부 한국작품의 온라인 서평과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으며, 김선남(2016)은 한국 출판물의 중국 진출 현황과 특성을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보다시피 대부분의 연구가 거시적·통시적인 관점에서 수용 현황을 기술하고 있는 데 반해 강경이(2016)는 독자 반응 측면에서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중국 현지 독자들의 온라인 서평을 연구하여 중국 시장에서 한국문학이 폭넓게 수용되는 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이 의미 있지만, 공지영 작가의 두 작품만 다룬 점이 아쉽다.

최면정(2014)은 중국에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몇몇 특정 외국 작가와 중국 유명 작가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작품들의 키워드가 ‘고독, 성공, 사랑’이었다고 언급하면서 번역지원을 받는 한국문학 작품 중에서 상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중국 독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김정일(2022)을 꼽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문학번역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됐던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및 출판’을 중국 번역 이론가 세텐진(謝天振⁴⁾의 ‘번역소개학 이론(Medio-Translatology)’⁵⁾을 활

3) 고인덕(2007, p. 163)은 문학작품의 수용 양상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판매 부수를 파악하는 것과 국내외 언론 및 평단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4) 중국 상하이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세텐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교문학 전문가이자 번역이론가이며 중국 비교문학 번역학의 창시자이다. 세텐진은 “번역문학은 중국 문학의 구성 부분이다”라는 관점을 제기하면서 번역문학의 귀속(歸屬) 문제를 이론적으로 논증한 중국 최초의 학자이자 중국에서 번역 연구의 ‘문화적 전환’을 가장 먼저 논한 학자이기도 하다.

용하여 한국 현대소설의 중국어 번역자, 출판 유통, 수용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국 현대소설의 중국어 번역 및 소개 모델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문학이 중국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수용되려면 중국 출판시장 흐름과 중국 독자들의 취향 분석, 체계적인 중국 시장 진입 전략 구축, 한중 양국 언론 매체를 활용한 한국문학의 홍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번역지원, 중국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문학 행사 개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보다도 우선 시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훌륭한 중국어 번역가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원작이 아무리 훌륭해도 중국어 번역본이 문화소의 부적절한 번역이나 오역으로 점철된다면 문학작품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중국 독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강경이(2016)는 중국 최대의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닷컴(豆瓣)’ 내 ‘더우반독서(豆瓣讀書)’ 카테고리에서 온라인 독자 서평을 추출하여,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작품이 실제로 중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또 어떠한 독자 반응을 얻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주제는 좋지만, 가독성이 그저 그렇다”, “스토리는 좋으나 번역이 감정 몰입을 해친다”, “한국어 고유명사에 대한 각주(주해)가 없어 읽는데 힘들었다”, “번역이 형편없다”, “번역 수준은 보통이다”(강경이, 2016, pp. 23-24) 등 번역 작품의 품질과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또한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본을 대함에 있어, 중국 독자들이 긍정적인 평가에 인색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중국 내 번역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겸업 아마추어 번역가이고 한국문학 중국어 번역에 특화된 전문 번역가가

5) ‘Medio-Translatology’라는 이론은 중국 번역이론가 세텐전 교수가 19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중국에서는 ‘译介学’라고 지칭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은 낯선 이론인 만큼 통용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일(2022)은 이 이론의 중국어 명칭을 뜻풀이하어 ‘번역소개학 이론’이라고 소개한다. 현재로서 통일된 용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번역소개학 이론’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정(김윤진, 2013)에서 찾을 수도 있다.

탄탄한 구성과 스토리를 갖춘 우수한 작품이 단지 번역 문제로 인해 평가 절하되거나 시장에서 외면받아 사장되지 않으려면 훌륭한 번역가 양성과 양질의 번역 제공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문학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번역 교육과 번역 방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후 개선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중국어 전문 번역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 내 한중 문학번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겠다.

3. 한국 통번역 교육기관에서의 한중 문학번역 교육 현황

손지봉(2012, p. 114)에 따르면, 문학번역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무모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창작에 버금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진 문학번역 교육자와 학생이 만나는 현장이야말로 바람직한 문학번역 교육 현장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내 한중 문학번역 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논문으로는 張琦(2005), 고광민(2007), 전기정(2009), 손지봉(2012) 등이 있다.

張琦(2005, p. 152)는 2005년 기준으로 중국어 관련 학과가 개설된 112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통역·번역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했는데, 교과과정 소개를 확인할 수 있는 96개 대학 중 번역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총 44개로서 전체의 약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4개 과목 중 27개는 통역과 번역을 묶은 강좌이거나 통역만 다루는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번역만 전문으로 다루는 과목은 17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광민(2007, pp. 295-298)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2007년 6월 기준, 109개의 중국어 관련 학과에서 번역 과목을 개설한 학과는 68개이고 그 비율은 62%에 달한다. 2005년에 비해 번역 과목 개설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번역 관련하여 단 한 과목만 개설한 대학이 56개, ‘통번역’을 묶음 강좌로 개설한 학교가 15개라는 점을 놓고 보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번역 교육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정(2009, p. 583)에 의하면 2008년 10월 기준으로, 146개(4년제 127개, 2~3년제 32개) 대학 중 108개 대학이 통역이나 번역 과목을 개설했는데 그중 통역 과목만 개설한 14개 대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94개 대학은 번역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

손지봉(2012, p. 115)은 전기정(2009)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번역 교과목 배치의 부적절성, 번역 전공과 외국어 학습 전공 구분의 필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통역번역대학원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상술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번역 교과목 개설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어 관련 교과목 중 하나의 강좌에 그치거나 통번역을 한데 묶어 강의하는 수업이 대부분이며 번역을 입문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아쉬운 부분이라면 대부분의 조사 연구가 2~3년제, 4년제 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에서의 한중 문학번역 교육 현황을 다룬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4학기제로 운영하는 통역번역 대학원 7곳과 한국문학번역원을 대상으로 삼고⁶⁾ 한중 문학번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6) 정혜용(2007, pp. 398-402)은 현재 학계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교육은 ‘번역 기술 교육’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나마 체계적으로 문학번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통번역 대학원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정혜용은 대학 사회에서 역사가 길지 않은 번역학을 학문으로 대하려는 인식과 제도적 노력이 부재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번역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주로 행해지는 번역 교육은 주로 관광, 경제, 금융, 기술, 산업, IT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통번역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온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조차도 번역 교육의 기본 방향을 고소득이 보장되는 경제·산업 번역시장에 초점을 두었고, 환경이 열악한 문학번역 시장과 출판 번역시장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기에 해당 분야에서의 통역번역대학원 출신 번역가들의 활동은 미미하며 산업 시장에서만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전해진(2015)의 주장은 오늘날 올바른 문학번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필자는 학부나 일반 대학원이 아닌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결과 2024년 6월 기준, 한국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제주대학교, 계명대학교, 한동대학교, 평택대학교 등 8개 대학에 통역번역대학원이 개설되어 있고, 중앙대학교의 경우 국제대학원에 통번역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는 맥쿼리대와 MOU를 체결하여 통번역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번역·TESOL 대학원을 설립하였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총 11개 교육기관 중에서 영어만 단일 과목으로 개설한 평택대학교, 한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의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중 문학번역 교과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3> 참조).

표 3
통역번역대학원 한중 문학번역 교과명

학교명	교과명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번역I AB, 문학번역I BA, 문학번역II AB, 문학번역II BA, 문학번역III AB, 문학번역III BA 번역실습평가(문학 텍스트 포함)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
중앙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중 및 중한 문학번역 1, 한중 및 중한 문학번역 2, 한중 및 중한 출판번역 1, 한중 및 중한 출판번역 2
제주대학교	-
계명대학교	-

<표 3>을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교과과정에는 ‘문학번역’이라는 수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콘텐츠 번역’이라는 수업은 있으나 주로 문화 관련 동영상이나 미디어 자료 등을 번역한다고 소개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는 체계적인 한중

문학번역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⁷⁾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은 다른 통역번역대학원과 달리 통역 전공과 번역 전공을 처음부터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번역 전공의 경우, ‘문학번역 I, II, III’(AB/BA)과 ‘번역 실습 평가’ 수업은 전공필수로 개설되어 있는데 번역 전공 학생들은 전문 번역가가 되기 위해 2년 동안 번역에 특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는 주로 번역 실습 위주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교육 방식이 한중 문학번역 교육에서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통번역 교육계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학번역을 현장 교육에 접목한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은 ‘한중 및 중한 문학번역(1/2)’ 수업과 ‘한중 및 중한 출판번역(1/2)’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한중 및 중한 문학번역’에 대한 교과목 개요를 보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한다. 문학번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원작 깊이 읽기 연습과 언어 표현력 향상 연습을 병행한다”라고 나와 있고, ‘한중 및 중한 출판번역’은 “상업 번역과 차별화되는 출판번역의 특징을 익히고 원작의 맛을 살리면서 목표언어권 독자가 인정할 만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번역하는 능력을 키운다. 실습과 강의, 토론을 통해 실용서를 번역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더불어 번역서 출판의 모든 단계, 즉 출판 기획과 저작권 계약부터 번역과 교열/교정, 편집디자인, 인쇄, 제책, 유통, 마케팅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한국 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 기관에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과 세계화를 위해 번역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배경 하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개설한 ‘한중 및 중한 출판번역’ 교과과정은 신진번역가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연구 및 출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제주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모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문학번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7) 필자가 검색해 본 바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와 한노과에는 ‘문학번역’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교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앞으로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전문적인 번역 교육을 받은 번역가들이 문학번역 교육의 한 축을 이뤄 적절하고 체계적인 문학번역 교육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어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중국어권의 문학번역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6년에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국가 지원기관으로, 차세대 우수한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 교육기관인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규과정', '야간과정', '번역아틀리에', '문화콘텐츠 번역 실무 고급과정'의 총 4개 과정을 개설했으나 2023년 가을학기부터는 '문화콘텐츠 번역 실무 고급과정'이 '정규과정'에 통합되어 '정규과정', '야간과정', '번역아틀리에' 3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1,3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한국문학번역원이 2021년 2월에 발표한 '한국문학번역원 중장기 추진계획(2022~2024)'에 따르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번역아카데미'를 번역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원)로 전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와 2023년 사업연감을 참고하여 '번역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아래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육과정 소개

분류	정규과정	야간과정	번역아틀리에
모집 언어	7개(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대상자	해외 거주 원어민, 국내 거주 내외국인	국내거주 내외국인	국내 거주 내외국인 중 신진번역가 또는 번역아카데미 기존과정 우수 수료자
강의 일정	(주간 운영) 2년제 (총 4학기, 48주), 주당 9-15시간	(야간 운영) 1년제 (총 2학기, 24주), 주당 2시간	(격주 운영) 1년제 (총 2학기, 14주), 격주 3시간
개설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학 및 문화 콘텐츠 번역 실습 •창의적 글쓰기 •한국문화 소양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학 번역 실습 및 저자 초청 공동 번역 작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번역 프로젝트 진행 •번역 세미나 등

2023년 중국어권 수강생 수료 인원을 살펴보면 정규과정(14기)은 5명(연수지원 3명, 일반지원 2명), 야간과정(16기)은 10명(신규반 6명, 심화반 4명), 번역아틀리에(14기)는 4명으로 총 19명이었으며 수료 인원수 총 82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학번역원, 2023, p. 48).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의 학사 일정, 강의 내용 및 방식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번역아카데미 한중 과정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수강생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수강생이 유사한 비율(손지봉, 2012, p. 119)을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한국문학번역원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한국인보다는 해당 언어권의 원어민 문학번역 작가 양성임을 고려할 때(전혜진, 2015, p. 139), 문학번역에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번역 작가 양성 및 발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한 학기당 12주, 주당 평균 2~3시간만 할애해서 한국문학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번역 전략과 절차를 토론하며, 더 나아가 창의적인 글쓰기와 번역 실습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혜진(2015, p. 140)은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의 야간과정은 주중에 강의 참석이 어려운 학생이나 직장인을 상대로 개설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셋째, 한국인 수강생과 중국인 수강생을 한 조로 묶어 팀별 활동을 하게 하면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 번역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다(손지봉, 2012, p. 119)는 주장도 있지만, 번역 실력의 격차·번역 스타일과 기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때로는 어휘나 문체의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번역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넷째,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을 번역 및 출판하는 해외 출판사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번역아카데미의 정규과정, 야간과정 수료생 중 연계 과정인 번역아틀리에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고, 번역지원 사업을 통해 문학 번역가로 활동하는 사람도 매우 적으며, 실력 번역 인력을 양성했다고 해도 최종 목표인 한국문학의 번역 출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전혜진, 2015, p. 140).

4.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에서의 개선 과제

앞서 언급한 한계점과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통번역 교육 기관의 노력 덕분에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및 출판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고 또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중국 내 수용 및 확대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번역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이건용과 송원찬, 2011; 김윤진, 2013; 한국문학번역원 등, 2014; 최면정, 2014; 강경이, 2016). 여기서 말하는 ‘번역의 문제’란 언어 치환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역, 누락, 삭제 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번역가의 인력 수급 문제, 열악한 번역가 처우, 공역자들 간의 협업 방식, 정치적·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인한 출판의 어려움 및 번역의 당위성, 저작권 보호 문제, 출판사 선정, 지리적인 제약·제한적인 교류 기회·번역 비용 지급 문제·효율적인 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국 거주 번역가들을 선호하는 중국 출판사의 입장, 종교와 관련된 문제, 독자들과의 소통 부재, 번역 도서 출판 후 관리 미흡, 번역가의 윤리 등 수많은 문제를 아우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번역의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윤리·저작권·정치·종교·커뮤니케이션 등 영역을 제외한 순수 번역 교육에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이 번역 이론 교육의 부재, 적절한 문학번역 교재의 부족, 번역 방법과 관련된 문제나 문화적 습관 또는 차이에 따른 번역 오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1 번역 이론 교육의 부재

곽순례(2006, p. 5)는 번역 관련 과목 개설 현황을 언어별로 조사했는데, 중국어 번역 과목의 개설 수는 영어 번역 다음으로 많았지만, 번역 이론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기정(2009, p. 590)도 한국 내 중국어 번역과 관련된 과목명에서 번역 이론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통번역 교수법이 지나치게 실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고 이론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통역번역대학원의 석사 과정 교과목을 살펴봐도 전문적인 이론 교육⁸⁾보다 통번역 실무 수업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번역 이론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무 위주의 수업만 듣게 되면 실제 번역에서 봉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적으로 통번역을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번역 이론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⁹⁾ 대학원에서 다루야 할 번역 이론은 적어도 번역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심도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전미연(2004)은 번역 교육 현장에서 번역 이론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번역 이론의 유용성을 주장하면서 ‘번역 이론’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번역 이론이란 체계화 여부와 무관하게 텍스트와 씨름하는 번역사가 한발 물러서서 텍스트를 바라보고 번역 과정을 객관화시키며 개별 번역 경험으로부터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어 다른 번역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번역에 대한 다양한 고찰들을 일컫는다(2004, p. 182).

이론 과목 부재의 원인을 이론 부재에 있다고 주장한 손지봉(2012, p. 116)은 한중 문학번역 과정에서 창출된 번역 이론이야말로 한중 문학번역 교육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이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날 한국 번역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론은 주로 서구에서 기원한 번역 이론들이다. 비록 서구 번역 이론이 번역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지라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언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서구 번역 이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되,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 또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생기는 번역상의 문제점은 따로 유형화

8) 번역 이론 교육은 박사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9) 穆雷와 鄭敏慧(2006, p. 6)는 통번역 교과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면 번역 이론 수업과 연습과목의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부 단계에서 통번역 전공의 경우 통번역 이론 수업의 비중은 15% 정도, 외국어 전공의 경우 5% 정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학원이나 전문 통역번역대학원의 경우 번역 이론 과목의 비중을 15%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여 분석한 후 한·중 문학번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번역 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여러 나라와 지역 번역 이론가들의 연구 또는 번역 이론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4.2 적절한 문학번역 교재의 부족

문학번역 교육용 교재는 존재하는가? 전기정(2009, p. 591)은 번역 수업을 진행할 때의 애로사항으로 번역 관련 교재의 부족을 지적했고, 손지봉(2012, p. 117)도 적절한 교재가 부족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각 대학의 중국어 번역 관련 교과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초·중·고급 레벨에 따라, 혹은 영역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콘텐츠와 수준의 번역 교재가 필요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스24에서 ‘중국어 번역’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중국어 관련 도서는 총 107권(품질 상품 포함)으로 확인되나 대부분이 통번역 입시용 교재, 자격증 취득 교재, 어휘 사전으로 제대로 된 중국어 번역 교재는 극히 소수이며 문학번역 교재도 턱없이 부족하다.

윤정화(2014)는 한국문학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방향을 연구하였는데, 한국문학 번역 학습자들에게 한국문화·한국어·한국문학 수업 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담은 어휘, 문학적 표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휘, 자신의 문학적 소감을 표현할 수 있는 쓰기 능력에 적합한 문법 요소나 전문적인 표현 등을 선정하여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한국문학번역원(2005)은 문학 교재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해외 한국학대학 문학교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미국·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학 대학의 한국문학 교육 및 문학 교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해야 할 문학 교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해당 연구는 ‘중국 대학의 한국문학 교재 현황’에서 교재의 종류, 사용 현황, 기존 교재의 특징과 장단점,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 추가적인 자료 조사나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아쉬움이 남는

다.

한중 양국의 문화와 문학을 모두 다루는 문학(번역) 교재의 개발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다룬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자료 조사 작업을 선행한 후, 한국과 중국의 초·중·고·대학교 교재 또는 참고도서에서 양국의 전통문화와 문학 관련 내용(문학의 역사, 문학가, 대표적인 문학작품 등)을 선별·추출하여 시리즈 형태의 문학 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적절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활용되었을 때에만 문학번역 교육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양질의 문학번역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3 번역 방법과 관련된 문제

지금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 내 한국문학의 저조한 수용,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통번역 기관의 교과과정 분석, 바람직한 문학번역 교육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면, 이 장절에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국문학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사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Jean Delisle(2014)은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에서 <문학번역 또는 ‘의미의 사막에 꽃을 피우는’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하면서, 이상적인 번역은 작품이자 재창작물로서의 번역을 실현하는 것인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원작의 모든 단어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문학작품을 중국어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한-중 문학번역 교육 시 문화소, 번역투와 가짜 짝, 접속 표지를 고려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아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언급하려고 한다.

4.3.1 문화소

문학번역을 논할 때 ‘문화소’를 빼놓을 수 없다. 문화의 한 부분에 속하는 문학번역에서 문화소의 전환은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학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차원의 전환을 넘어 가치관, 이데올로기, 종교(신앙), 사유 방식 등을 포함한 지극히 복잡한 문화적 차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요소가 번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임형재 등, 2022, p. 39).¹⁰⁾

문화소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그 분류 방법과 기준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 서로 다양한 이견을 갖고 있으나 출발어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통번역 상황에서 주요하게 통역과 번역의 대상이 되는 문화 언어적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임형재 등, 2022, p. 47).¹¹⁾ 문화소를 범주화하여 진행한 한국 내 대표적인 연구는 이근희(2003), 심재기(2004), 김효중(2005), 강수정(2010), 김혜림 등(2016)과 맹주억과 서예진(2017)을 들 수 있다.

이근희(2003)는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고유명사(인물, 건물, 조직, 단체, 저서 등), 특정 문화 또는 사건과 관련된 어휘(관습, 사회, 의식주, 지역 등), 관용구(속담, 유행어, 은어 등), 도량형 단위(거리, 높이, 중량, 화폐 등), 지위나 직위, 날짜 표기 방법 등 언어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심재기(2004)는 문화소를 ‘토속적인 표현’으로 정의하고 물질적·정신적 문화의 대상, 호칭과 관직, 인사말, 감탄사(아이구, 예구구 등) 등 네 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김효중(2005)은 문화소를 ‘곡비’, ‘청개구리’ 등과 같은 어휘 측면의 번역과 ‘더운밥 먹고 식은 말 하겠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등과 같은 텍스트 측면의 번역으로 나누었고, 강수정(2010)은 문화소의 부등성을 실제적 부등성, 의미

10) 도원영(2019)은 한국문학 번역 사전 구축을 위해 언어권별(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2명),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번역 전문가 총 8명을 인터뷰하였는데, 조사 결과 일본어를 제외한 6개 언어권 인터뷰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어려움은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는 어휘(문화 어휘), 즉 문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022년에 출판된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문화소 번역의 이론과 실제』가 현재까지는 문화소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적 부등성, 한자 사용의 부등성, 형식적 부등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중한 문화소의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혜림 등(2016)은 문화소를 크게 심층문화, 중층문화, 표층문화로 나눈 후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주억과 서예진(2017)은 문화소를 범주화하기 위해 13개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대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로 읽힌다.

이에 비해 중국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문화소 분류는 대분류와 기준 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구체적인 문화소를 중심으로 기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楊德峰(1999)은 역사, 지리, 정치, 제도, 종교, 인물, 문예, 의류, 음식, 절기, 풍습, 의례, 기구, 건축, 성어 속담 등 열다섯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許明武(2003)는 ‘문화 특정 항목’이라는 용어로 관념, 풍속과 습관, 역사, 문화배경, 지역, 종교, 신체언어와 손짓 등 일곱 가지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 5>는 Nida(1964)와 Newmark(1988)¹²⁾ 두 학자의 분류 기준의 장점을 수용하고, 다른 학자들의 분류를 참조하여 중첩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조율하여 정리한 문화소 분류 기준이다.

표 5

문화소 분류(임형재 등, 2022, pp. 78-79에서 인용)

분류	세부 항목	
생태문화소	자연적 요소: 강, 기후, 동식물, 산맥 등	
	인위적 요소: 도시, 마을, 시골 등	
물질문화소	교통, 도구, 음식, 의복, 주거, 통신 등	
제도문화소	경제, 교육, 군사, 기술, 법률, 역사, 예체능, 정치 등	
관습문화소	관습, 명절, 몸짓, 예의, 풍속, 호칭 등	
관념문화소	가치관, 사유 방식, 이념, 이데올로기, 종교, 토속신앙	
언어문화소	규범적	관용적 표현: 관용구, 격언, 성어, 속담, 혈후어 등

12) Nida(1964)는 번역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번역 문제가 야기되는 문화소 분류의 범주를 다음의 5가지, 즉 물질문화, 사회문화, 생태학, 언어문화, 종교문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Newmark(1988)는 문화적으로 고유한 특징을 담고 있는 문화소를 태도와 몸짓, 물질문화(인공물), 사회문화, 생태, 개념·과정·관습·조직·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임형재 등, 2022, pp. 71-72).

		상징: 색채어, 비유 표현 등
		경어법: 겸양법, 공손법, 존경법 등
		말장난: 언어유희, 유머 등
	비규범적	외국어: 중국식 외국어 등
		비속어: 속어, 비어, 욕설, 은어 등
		방언: 사회방언, 지역방언
		말투: 격식적 말투, 연령대 말투, 일상적 말투

<표 5>의 세부 항목 중에서 한국 문학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언급하자면 제도문화소(군사, 역사, 정치 등), 관념문화소(사유 방식, 이데올로기, 종교 등)와 더불어 언어문화소 중 혈후어¹³⁾, 성어, 속담, 언어유희, 비유 표현 등이다. 특히 속담이나 관용구의 한중 번역 시 ‘형태적 등가’에 집착하여 번역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한국 속담은 중국어권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속담을 선택하되, 한중 양국에서 그 속담의 이미지가 서로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어 속담 ‘양반은 못 된다’는 중국어에서 한국어 속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역사적 인물 ‘조조(曹操)’가 등장하는데, ‘说曹操, 曹操到(조조 이야기를 하니 조조가 바로 나타난다)’가 적절한 대응어가 된다. 그러나 웹툰 작가 윤태호의 인기 작품 『미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한중 번역에서 ‘양반은 아니다’를 ‘说人人到(그 사람을 말하니 그 사람이 온다)’(최미정, 2021, p. 124에서 인용)라고 번역하였는데 의미 전달은 가능하나, 중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어색하게 느껴진다. 또 다른 일례로,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1』에 등장한 속담 중에서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다(鸦飞过梨子掉落)’와 ‘빛 좋은 개살구(好看不好吃的野杏)’의 중국어 번역(권금숙, 2012, 72-74에서 인용)을 들 수 있다. 단순히 은유적 요소의 역할을 하는 ‘까마귀’, ‘배’, ‘개살구’를 번역자가 직역한 결과 한국어 속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따라서 상술한 두 개의 한국어 속담과 비록 제유(提喻)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중국어 표현 ‘瓜田不纳履, 李下不整冠(오이밭에

13) 혈후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굳이 비유하자면 앞부분은 문제, 뒷부분은 답으로 구성되었다(정미선, 2019, p. 179).

서는 신발이 벗겨져도 허리를 굽혀 다시 신지 아니하며, 자두나무 밑에서는 손을 올려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남에게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마라)과 ‘绣花枕头一包草/华而不实(겨울 담은 수놓은 베개/비단보에 개똥/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다)’로 번역하여야 효과의 등가를 이루는 번역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중국어의 특성에 따라 중국어 번역은 의미 전달에 그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므로 ‘효과의 등가’ 원칙을 기본 토대로 하는 ‘동태적 등가’¹⁴⁾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어 번역 결과물은 어색해지거나 중국 독자들로부터 원문과 비슷한 반응을 유도해 내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4.3.2 번역투와 가짜 짝

김혜림(2009)은 번역 결과물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소위 ‘번역투’라고 하는 일련의 흔적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조상은(2003)은 ‘번역투’란 도착어가 출발어 특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도착어가 부자연스럽거나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우습기까지 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설명한다. 이근희(2005, p. 105)는 번역투란 특정 글이 원문이 아닌 번역문이라는

14) 1960년대 의미, 등가, 번역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Nida는 ‘직역’이나 ‘의역’이나 등의 학술어를 버리고 그 대안으로 형태적 등가, 동태적 등가와 효과의 등가를 제시했다. Nida의 번역 접근은 학계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번역 이론가들이 시도조차 못 했던 업적을 이뤄냈고 당시 ‘단어 대 단어’라는 등가 개념에 머물러 있던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후대의 다수 번역학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Nida의 등가 개념 모델은 매우 중요하다. Nida는 번역이 효과의 등가 또는 반응의 등가를 달성하느냐가 번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이는 아래와 같은 ‘번역문의 네 가지 기본 요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첫째, 말이 되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원문의 정신과 양식을 전달한다. 셋째, 자연스럽게 평이한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다. 넷째, 원문과 비슷한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동태적 등가에서는 위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고 한다. Nida는 효과의 등가를 달성하려면 ‘문체의 대응보다 의미의 대응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unday et al., 2022/2023, pp. 112-116).

표지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원문의 스타일이나 형태가 번역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번역문학 작품의 경우 ‘번역투’, 즉 출발어 가짜 짝의 간섭현상은 도착어 독자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반감시킨다. 김정우(2003, p. 144)는 번역투를 ‘도착어 고유의 규범성을 어기는 이질적인 존재’라고 지적하며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번역투는 가독성을 떨어뜨려 저자가 독자층에 기대하는 반응을 저어할 뿐만 아니라 도착어 고유의 언어 체계를 왜곡 또는 훼손시켜 심할 경우 문화 간 패권 다툼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이근희, 2005, p. 116). 따라서 한국문학 작품의 중국어 번역본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독자 서평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중 문학번역 시 번역투를 제거해야만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포자미(faux amis)로도 잘 알려진 ‘가짜 짝’은 기의(記意)나 문법적인 사용 등이 달라 언어별 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기표(記標)의 유사성으로 인해 출발어와 도착어 간 번역에서 번역투를 유발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형태의 유사성을 지닌 동원기표소(同源記票素)¹⁵⁾는 두 언어 간 번역에서 간섭의 빌미를 제공한다(김혜림, 2009, p. 348).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동원기표소를 공유하는 언어적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두 언어는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와 동원어(同源語)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각자의 언어 체계 내에서 시각적·청각적 이미지가 다른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어휘 의미로 사용되거나 다른 언어(collocation) 규칙을 수반하는 가짜 짝이다(김혜림, 2009, p. 365).

다른 언어 간 번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한중 언어 간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학습자나 번역자들은 한국어를 일대일 원칙으로 중국어로 옮기거나, 중국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옮기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표 6>의 예시처럼 설령 동일한 한자의 형태가 한중 두 언어권에 모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 ‘동원기표소’란 동일한 한자 표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어에서 한자 표기가 가능한 모든 글자와 중국어의 모든 글자(字)가 여기에 해당한다(김혜림, 2009, p. 347).

표 6
한중 가짜 짝 예시

가짜 짝	한국어 의미	중국어 의미
客氣	객기(객쩍게 부리는 험기)	예의 바른 표현이나 겸양
老婆	노파(늙은 여자)	부인, 아내
汽車	기차, 열차	자동차

예를 들면,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여러 중국어 번역본¹⁶⁾이 있는데 그 중 『한국인이 즐겨보는 단편소설(感動韓國人的短篇小說)』에 수록되어 2008년에 출판된 번역본에서 金京善은 ‘생원’과 ‘선달’을 일대일 원칙에 따라 ‘生員’과 ‘先达’로 번역하였다.

‘생원’은 “조선 시대에 소과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조선 후기부터는 존칭어, 즉 “나이가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로 성씨 뒤에 붙여 사용했다. ‘선달’ 역시 “조선 시대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던 말”이지만 실제로 양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칭어로 사용되었을 뿐이다(정동준, 2016, pp. 83-84).

‘생원’과 ‘선달’의 중국어 의미를 살펴볼 때 전자는 “봉건시대 태학 등 학문기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에 대한 통칭으로 당나라 때에는 감생(監生)을, 명·청 시대에는 지방에서 시행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칭하는 수재(秀才)”를 뜻한다면, 후자는 “덕행이 높고 학문이 뛰어난 선배나 연장자”를 가리킨다. ‘생원’과 ‘선달’이라는 동일한 한자 형태가 한국과 중국에 모두 존재하기는 하나 앞서 기술한 한국어와 중국어 뜻풀이만 비교해 보아도 그들이 가리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번역은 반드시 자연스러운 번역, 즉 자국화 번역 방법을 통해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0년과 2011년에 출판된 두 번역본은 모두 ‘생원’과 ‘선달’의 출발어 의미에 더 중점을 둔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 방식에 따라 ‘老許’와 ‘老趙’로 번역하였다.¹⁷⁾

16) 金京善(2008)이 번역한 번역본 외에도 權赫律가 번역한 『배따라기(船歌)』(2010)와 이린덕과 태산이 엮은 『한중대역문학작품선독(상)』(2011)도 있다.

17) ‘老’는 중국어에서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윗사람에 대한 존칭어로 사용되는 어휘

쉽지 않은 작업이겠지만 한중 또는 중한 출판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가짜 짝을 지속적으로 추출한 후, 어휘 의미 및 언어 규칙을 규명하여 방대한 병렬 코퍼스를 구축한다면 한중 번역가들이 적절한 어휘 선정 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3.3 접속 표지

마지막으로 접속 표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한다. 중국어에서는 접속 표지를 한국어에서만 명시적으로 쓰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문장의 앞뒤 맥락에 따라 쉽게 생략할 수 있다(이현주, 2018, p. 202). 안기섭(2011, p. 73)은 중국어의 경우, 굴절어나 첨가어로서의 특성이 강한 언어에 비해 접속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원(2002, p. 128)은 하나의 문장에서 어휘의 단위를 넘어 둘 이상의 문장을 분석할 때,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속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텍스트의 결속성’이란 텍스트의 정보 단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론적 연결구조를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Halliday와 Hansan(1976)은 문장과 텍스트의 결속은 단어나 구, 절이나 문장의 구성성분이 수행하는 문법 기능을 함수로 하여 지시, 대치와 생략, 접속, 어휘 결속으로 묶여 있다고 하였다(박상수, 2013, p. 114에서 인용). 이 가운데서 ‘접속’은 일반적으로 접속어를 통해 실현되는데, ‘접속어’는 번역사가 원문 텍스트의 의미를 명시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표지다. 즉, 원문 텍스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번역사가 번역 과정에서 접속어를 덧붙여 도착 텍스트에서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어에서 ‘접속어’는 주로 접속부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뒤 문장 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어 줌과 동시에 그것을 수식하는 부사를 지칭한다(장기열, 2003, p. 176). 이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안정아와 남경완(2016)이 제시한 ‘접속 표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접속 표지는 두 접속 대상 간의 의미적 관계가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접속 조사, 연결 어미, 접속부사와 같이 접속 기능을 표시하는

인데 성씨 앞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시적 문법 장치들 외에도 어휘적 결속 및 시간적, 논리 의미론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일부 어휘들도 접속 표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016, p. 179에서 인용).

접속부사는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등처럼 문장 첫머리에 쓰이고, 접속 조사는 ‘~랑, ~와/과’ 등과 같이 하나의 문장 중간에 쓰이며, 연결 어미는 ‘~니까, ~도록, ~면서’ 등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이현주, 2018, p. 205).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어와 달리 접속 표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국어의 통사적 특징으로 인해 중-한 방향으로 번역할 때, 번역사들은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접속어를 추가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어는 연결 어미, 접속부사, 접속 조사처럼 문두, 문중, 문말에 사용할 수 있는 접속 표지가 매우 다양하므로 중국어로 글을 쓰거나 번역 또는 말할 때 간섭을 받아 접속사의 과도한 사용으로 오히려 어색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래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에 나타난 중국어 번역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⁸⁾

<예시 1>

원문: 몇 시간 전에 내가 샤워를 했으므로, 그때 물이 튄 슬리퍼가 아직 차갑게 젖어 있었다. (p. 15)

번역문 1: 几个小时前我刚洗了澡, (Ø) 被溅到水的拖鞋此时依然冰冷潮湿。 (p. 10)

번역문 2: 几个小时前我刚洗过澡, 所以溅了水的拖鞋还是冰冷潮湿的。 (p. 6)

18) 『채식주의자』의 중국어 번역본은 총 세 권이 있는데 그중 한 권은 번째자 버전이고 다른 두 권은 간체자 버전이다. 중국어 간체자 번역본 중 2013년 버전과 2016년 번째자 버전의 역자가 동일 인물이 데다 번역 결과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번째자 버전을 제외하고 2013년 千日가 번역한 『素食主義者』와 2021년 胡椒筒이 번역한 『素食者』를 선택하여 비교한다. 번역문 1과 번역문 2는 각각 2013년 버전과 2021년 버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예시 2>

원문: 그러나 거래처 사람에게 둘러댔 변명과 오늘 소개할 시안을 삼십 분 안에 정리해내야 했으므로, 더이상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 할 여유가 없었다. (p. 18)

번역문 1: 然而, 我必须在三十分钟内想好该如何向客户解释迟到的原因, 并整理好今天要介绍的方案, (Ø) 根本无暇去思考老婆的异常举动. (p. 13)

번역문 2: 然而, 我必须在三十分钟内想好应该如何向客户辩解, 以及修改好今天要介绍的方案. 因此, 我根本无暇去思考妻子异常的举动. (p. 9)

<예시 1>과 <예시 2>의 원문에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므로’가 공통으로 등장하는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은 ‘因为…, 所以(因此)…’가 있다. 번역문 2는 원문의 ‘~으므로’를 ‘所以’ 또는 ‘因此’로 모두 번역하여 출발어 텍스트에 충실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했다면 번역문 1은 두 예시에서 연결 어미의 번역을 모두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그 결과 번역문 1은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번역문 2는 생략해도 무방한 연결 어미를 다 번역했기 때문에, 비록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군더더기처럼 느껴진다.

이 밖에도 <예시 2> 원문에 나타난 접속 조사 ‘~과’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문 1은 ‘并’으로, 번역문 2는 ‘以及’로 번역했다. 한국어의 ‘~와, ~과, 및’ 등 접속 조사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跟、和、及(以及)、与、同’ 등 여러 선택 사항 중에서 무작정 하나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중국어에서 ‘并’은 ‘그리고, 동시에, 또한, 아울러’의 의미를, ‘以及’는 ‘그리고, 또한, 및, 아울러’의 의미를 지닌다. 두 조사의 의미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용법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以及’는 병렬관계의 단어나 구(詞組)를 연결할 때 사용되고 ‘并(且)’은 두 개의 동사 또는 동사성(動詞性) 구 사이에 쓰여 두 동작이 동시에 또는 전후해서 일어남을 나타내거나 복문의 뒤 절에 쓰여 점진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어 원문을 분석해 보면, ‘거래처에 지각한 이유를 어떻게 해명할지 생각한다’라는 문장과 ‘오늘 소개할 시안을 삼십 분 안에 정리해 내야 한다’라는 문장을 접속 조사 ‘~과’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앞서 설명한 ‘并’과

‘以及’의 차이점과 용법을 파악했다면 ‘以及’보다는 ‘并’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문의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并’으로 번역한 번역문 1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접속 표지는 문화소나 가짜 짝 번역에 비해 1대1로 매칭되거나 유의어에 해당하는 번역 대안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미세한 차이와 용법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시 출발어 텍스트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오역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접속 표지’ 사용 특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국 문학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적절한 접속 표지의 생략, 대체와 추가 전략을 통해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내 통번역 교육기관에서 한중 문학번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에 앞서 중국 내 한국문학의 출판 및 수용 양상을 통해 한국문학이 중국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그다음으로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번역 교육과정에서의 개선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는 번역을 떠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번역이 교류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학이 중국에 정확하게 소개되고 보다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수용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문화와 문학에 박식한 번역가들의 양성과 발굴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유수의 통역번역대학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은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한국문학 번역에 특화된 전문 번역가 양성 작업은 여전히 결핍 단계이고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7개 통역번역대학원에서 문학번역 교과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두 곳에 불과하다는 점, 번

역 이론 교육의 부재, 적절한 문학번역 교재의 부족 등이 바로 그 방증이다.

한국문학의 해외 저변 확대·전파·홍보에 앞장서는 기관(대산문화재단,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번역원)들이 AI 번역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번역 출판 건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한국문학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 활성화를 꾀하려면 ‘일방적인’ 한국문학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중국 출판 산업의 특징, 출판 무역 시장의 흐름,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인식, 반응 및 선호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의 독서 취향에 맞는 문학작품을 신중하게 선정한 후 양질의 번역 결과물을 제공한다면 한국문학은 분명 중국 독자들에게 한국의 과거와 현재, 명소·음식·문화·전통 등 한국 고유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는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에서 질적 보장을 강조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에 대한 논의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다루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선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을 한국에 국한하여 중국 내에서 한국문학 번역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번역가 양성을 위해 어떤 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을 짚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내에서 문학 장르만을 기반으로 한 도서 저작권 수입국 및 지역별 통계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 전체 수입 상황을 표로 제시하는 데 그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한국문학의 중국 내 수용과 확대, 가독성과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즉 ‘번역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기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가장 최신 관련 통계를 통해 중국 내 한국문학의 출판 및 수용 현황을 살펴본 것은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맞물려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 번역 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번역이론가와 번역 이론 개념을 소개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학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기술했기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교육 확대 및

우수한 중국어 번역가 양성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權赫律. (역). (2010). 船歌 [The Baettaragi]. 吉林大學出版社.
- 金京善. (역). (2008). 感動韓國人的短篇小說 [The Touching Short Stories for Koreans]. 民族出版社.
- 千日. (역). (2013). 素食主義者 [The Vegetarian]. 重慶出版社.
- 胡椒筒. (역). (2021). 素食者 [The Vegetarian]. 四川文藝出版社.
- 한강. (2007). 채식주의자. 창비.

<2차 자료>

- 강경이. (2016). 한국번역문학에 대한 중국 현지 독자들의 반응 연구 —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의 온라인 독자서평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7-31.
- 강수정. (2010). 중한 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4), 7-23.
- 고광민. (2007). 대학 중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번역교육 — 현황, 의의 및 방법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24, 293-321.
- 고인덕. (2007).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에 관한 연구: 최근에 소개된 『무도녀』, 『남녘사람, 북녘사람』, 『마이네리그』를 중심으로. 심재기. (편), 세계속의 한국문학 (pp. 161-184). 연세대학교 출판부.
- 곽순례. (2006). 학부 언어 교육에 번역의 활용에 대한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10(2), 1-18.
- 권금숙. (2012). 한국어 속담의 중국어 번역방법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1, 65-98.
- 김선남. (2016). 한국 출판물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서지학연구, 65, 331-355.

- 김윤진. (2013). 중국에서의 문학한류와 번역현황. 한국출판학연구, 19(1), 71-85.
- 김정우. (2003).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 143-167.
- 김정일. (2022). 중국에서의 한국현대문학 수용양상 연구. 역락.
- 김혜림. (2009). 번역투와 포자미(faux amis): 중한 출판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회, 30, 345-367.
- 김혜림, 장애리, 강려영. (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
- 김효중. (2005). 문학작품 번역에서 문화 적용의 문제. 어문학, 87, 519-536.
- 도원영. (2019). 한국문학 번역사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 맹주익, 서예진. (2017). 影響韓中跨文化交際的文化因素的調查分析 — 以中國初中教科書 『思想品德』 爲例. 중국학연구, 81, 73-96.
- 박상수. (2013). 영-한 번역을 통한 표층결속의 비교분석. 언어과학연구, 64, 113-132.
- 손지봉. (2012). 한국의 중국문학번역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통번역교육연구, 10(1), 107-128.
- 심재기. (2004). 문학적 전이로서의 번역 — 문학번역에 있어서의 ‘토속적인 표현’의 번역의 문제. 번역문학, 5, 30-40.
- 안기섭. (2011). 중국어 접속표현(Connectives)의 유형론적 특징. 중국인문과학, 49, 73-110.
- 안정아, 남경완. (2016). 초등학생 일기 텍스트의 접속 표지 연구. 어문논집, 77, 177-207.
- 왕염려. (2014). 중국의 한국현대문학 번역 및 수용양태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윤정화. (2014). 한국문학번역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과 교재의 개발방향. 이화어문논집, 34, 147-167.
- 이건웅, 송원찬. (2011). 한국 출판콘텐츠의 중국출판 현황 및 전망. 글로벌 문화콘텐츠, 6, 97-128.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2), 5-27.

- 이근희. (2005). 번역산책: 번역투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한국문화사.
- 이민덕, 태산. (편). (2011). 한중대역문학작품선독(상). 연변교육출판사.
- 이상원. (2002). 텍스트성을 기준으로 한 노-한 번역 텍스트 분석. 통번역학 연구, 6, 15-144.
- 이현주. (2018). 소설 텍스트의 중한 번역방법 연구 — ST의 ‘문화소’와 TT의 ‘접속 표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1), 199-226.
- 임형재, 이석철, 리번켈빈. (2022). B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문화소 번역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장기열. (2003). 연구논문: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19, 175-194.
- 장애리. (2013). 한중번역 출판사의 통시적 고찰. 통역과 번역, 15(1), 203-233.
- 전기정. (2009). 중국어 번역교육의 현황과 향후 교육방법. 중국어문논역총간, 24, 586-593.
- 전미연 (2004). 기능적(functional) 번역이론 개념과 번역교육에의 활용. 통역과 번역, 6(1), 179-200.
- 전혜진 (2015). 한국문학 및 문화 콘텐츠의 러시아어 번역교육에 관한 소고. 한국노어노문학회, 135-147.
- 정동준. (2016). 이효석 소설의 중국문화권 번역 양상과 의미 — 『메밀꽃 필 무렵』에 나타난 감정 평가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54, 75-95.
- 정미선. (2019). 왜 공부해도 중국어는 그대로일까? 이담복스.
- 정혜용. (2007). 문학번역 교육에 관한 소고 — 불문학과 번역학의 만남을 위하여. 프랑스어문 교육, 26, 397-410.
- 조상은. (2003). 일한번역에서의 번역조와 가독성의 문제. 통역과 번역, 5(2), 169-193.
-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 (2024. 6. 18). 2021년 전국 신문출판업 기본 상황. <https://www.nppa.gov.cn/xxgk/fdzdgknr/tjxx/202305/P020230530666964143612.pdf>
- 최면정. (2014). 한국 소설의 글로벌 전략 — 해외 독자への 수용 가능성을

-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4, 233-268.
- 최미정. (2021). 문화소 차이에 의한 드라마 자막번역 양상 분석 — 드라마 ‘미생’의 한중 자막번역을 통해. 한국말글학, 38, 101-132.
- 한국문학번역원. (2005). 해외 한국학대학 문학교재.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번역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BK21+번역전문인재양성사업단. (2014). 한국문학번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번역원. (2021). 한국문학번역원 중장기 추진계획(2022~2024).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번역원. (2023).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연감 2023.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2020~2022년 국내 출판 수출 현황 조사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穆雷, 鄭敏慧. (2006). 翻譯專業本科教學大綱設計探索 [Designing Syllabus for Undergraduate Translation Major]. 中國翻譯, 5, 3-7.
- 文麗華. (2018). 韓國現代小說在中國: 翻譯出版現狀、問題及解決方案 [Korean Modern Novels in China — A Study of Problems and Solutions in Translation and Publication]. 當代韓國, 4, 1-4.
- 楊德峰. (1999). 漢語与文化交際 [Chinese Language and Cultural Communication]. 北京大學出版社.
- 張琦. (2005). 韓國漢語本科教學中的翻譯教學 [Interpretation/Translation Education of 4-year University Chinese Major Courses in Korea]. 중어중문학, 37, 151-162.
- 許明武. (2003). 新聞英語与翻譯 [English Journalism and Translation].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 Halliday, M. A. K., &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Jean, Delisle. (2014, December 5-6). 문학번역 또는 “의미의 사막에 꽃을 피우는” 예술.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 발표자료집 (pp. 26-37). <https://www.ltikorea.or.kr/upload/dataevent/20191203175133311241.pdf>
- Munday, J., Ramos Pinto, S., & Blakesley, J. (2023).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남원준, 이형진, 공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Original work published 2022)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s*. Prentice Hall.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인터넷 검색 자료>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4. 6. 21.). <https://www.bufs.ac.kr>

예스24. (2024. 6. 18.). <https://www.yes24.com>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4. 6. 18.). <https://gsti.ewha.ac.kr>

한국문학번역원. (2024. 6. 18.). <https://www.ltikorea.or.kr>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2024. 6. 18.). <https://gsit.hufs.ac.kr>

Chinese translation education for Korean literature: Present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Meishan Zheng (zms613@ewha.ac.kr)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In recent years, Korean books have gained increasing popularity in China, largely due to the Korean Wave. This trend has led to a significant rise in the export of Korean literature to China. Despite this momentum, however, Korean literature remains relatively obscure and occupies a peripheral position in the Chinese literary polysystem. While there has been progress in publishing Chinese translations, thanks in part to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a major challenge persists: the shortage of competent translators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language. To address this issue,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well-structured system for literary translation education, one that focuses on identifying and nurturing talented literary translators and designing a systematic curriculum that equips students to produce high-quality translations.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ddresses various issues concerning Chinese translation education for Korean literature. It investigates the publication and recep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reviews educational programs available in South Korea, and proposes a detailed set of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ranslator training in this field.

Keywords: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education; translation textbook; translation theory; Korean-Chinese translation

키워드: 문학번역, 번역 교육, 번역 교재, 번역 이론, 한중 번역

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생

zms613@ewha.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13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